

미래 모빌리티 UAM vs 비전 AVTR vs 우븐시티 3강구도

<현대차>

<벤츠>

<도요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0'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대거 선보였다.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의 개념을 벗어나 우리 삶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대 모빌리티 기업 우버와 손잡고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제시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는 할리우드 영화 아바타에서 영감을 받은 미래 콘셉트카 '비전 AVTR'을, 일본의 도요타는 모빌리티로 도시를 연결하는 '우븐 시티'를 공개했다.

현대차는 올해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최초로 공개했다.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로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고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로 도로 위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두 종류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미래도시 전역에 설치될 허브(모바일 환승 거점)와 연결돼 모빌리티 생태계를 형성한다. 설계에 따라 카페, 병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자동차가 장소를 이동해주는 운송수단의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활공간을 넘어 삶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현대차는 PAV(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과 주거용과 의료용으로 제



7일(현지시간) 개막한 CES 2020에서 현대차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PBV콘셉트 'S-link'.

현대차

'우버'와 손잡고 하늘과 지상 연결, 생활공간 넘어 삶의 공간 확대

작된 PBV콘셉트인 'S-link(에스-링크)'도 실물크기로 전시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현대차는 이번 전시회에서 벤츠와 아우디, 도요타 등이 전기차 등을 소개한 것과 달리 전통적인 형태의 콘셉트카를 선보이지 않았다. 현대차는 개인항공기 비중을 30%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기반 도심 공유형 모빌리티 콘셉트인 엠비전 S(M.Vision S) 등을 전시했다. 엠비전 S는 지난해 공개한 엠비전보다 한 단계 진화한 수준으로, S는 공유(셰어링) 가능한 모빌리티를 의미한다. 엠비전 S는 탑승객이 공연장에 갈 때는 그에 맞춰 음악과 조명을 제시하는 등 탑승객과 교감



메르세데스-벤츠가 7일(현지시간) 개막한 CES 2020 전시관에 '비전 AVTR' 쇼카를 공개했다.

벤츠

제임스 카메론 영화감독과 협업 컨트롤러에 손대면 심박수 인식

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비전 AVTR' 콘셉트카를 공개했다. 벤츠와 할리우드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이번 콘셉트카는 상상력이 더해진 벤츠의 미래 지향적 기술력을 보여준다.

자동차 내 모든 차체와 타이어까지 렉서리한 감성을 품은 유선형으로 형상화됐으며 밝은 조명이 더해지면서 연결성이 강조됐다.

비전 AVTR은 유선형이 강조된 차체에 밝은 조명이 어우러져 미래지향적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설계됐다. 인간과 기계의 연결이라는 테마가 강조됐으며 자율주행이 기본 사양으로 갖춰졌



아우디가 7일 개막한 CES 2020 전시관에 자율주행차 'AI-ME'를 공개했다. /양성운 기자

도요타

수소연료 전지, 에너지로 운영 70만㎡ 규모 2021년부터 조성

다. 탑승객이 타원형 컨트롤러에 손을 갖다대면 심박수를 인식해 차량이 함께 진동한다. 차량 소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마치 파충류의 비늘을 연상시키는 33개의 '바이오닉 플랩'은 차량 외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사용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머지않은 미래에 구현될 인간과 기술 간 긴밀한 연결성에 대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비전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환경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미션을 표현하는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아우디는 탑승자와 교감할 수 있는 모빌리티인 'AI:ME' 쇼카를 선보였다. 눈으로 차량과 직관적으로 소통하

고 가상현실(VR) 고글을 착용하면 가상비행을 즐길 수 있으며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제3생활공간을 지향한다. 아우디 인텔리전스 익스피리언스는 사용자 습관을 학습하고 AI와 결합한 지능형 기능을 사용해 탑승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향상시키게 된다.

도요타는 모빌리티로 도시를 연결하는 '우븐 시티'라는 콘셉트를 공개했다. 해당 도시는 수소연료 전지를 에너지로 운영되며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로봇 공학, 모빌리티 서비스 등 다양한 미래기술 분야를 실험하는 곳이다.

일본 후지산 근처에 자리잡게 될 '우븐 시티'는 175에이커(70만㎡)의 규모로 2021년부터 조성될 예정이다. 이 도시는 도요타 임직원 및 가족 2000여명이 실제로 거주하며 다양한 미래기술 실험들을 시도한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metroseoul.co.kr



워터인덕션+식기세척기 결합 콘셉트 제품.

CES 5번째 노크... 공청기·비데 글로벌 진출

웅진코웨이 현 사명으로 마지막 참가 워터 인덕션+식기세척기 결합 제품 등

CES에 올해로 5번째 참가하는 웅진코웨이는 글로벌 시장 추가 공략을 위해 '자가관리형 공기청정기'와 '비데 메가'를 새로 선보였다.

자가관리형 공기청정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스스로 필터 세척 및 교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제품은 최근 국내 시장에서 자가관리하기 손쉬운 공기청정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선보인 혁신 제품이다.

자가관리형 공기청정기는 사용자가 시기에 따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프리필터의 세척이 필요한 시점과 초미세 먼지 집진필터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에 맞춰 알람을 주는 스마트한 제품이다. 또한 정기적인 세척이 필요한 프리필터

특성에 맞게 제품을 오픈하지 않아도 필터를 위로 쏙 뽑아 꺼내 간편하게 세척이 가능하도록 혁신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관리 편의성을 강화시켰다. 또한 기존 동일 평형대의 자사 제품 대비 약 40% 정도 사이즈를 축소해 공간 효율성도 높였다.

자가관리형 공기청정기는 이달 중국 내 출시를 시작으로 유럽, 대만, 미국, 일본 시장 등에서 연이어 선보일 계획이다.

웅진코웨이는 또 이번 전시에서 실속형 제품인 '비데메가(Bidetmega)150'과 프리미엄 제품인 '비데메가 400'도 내놨다. 미주 소비자 조사 결과 비데의 야간 변화 라이팅 기능과 어린이 맞춤 모드, 시각장애인용 점자 표기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으로 파악돼 이번에 출시되는 비데 2종에 모두 이들 기능을 적용했다.

/김승호 기자

고대유적 이어 영화관도 옮긴 CJ대한통운

CJ 4DPLEX 통합관 '4DX Screen' 천장까지 스크린 더해 4면이 스크린 美 CES 행사장까지 운반 후 회수까지

CJ대한통운이 첨단 영화 상영관을 한국에서 미국까지 날랐다.

CJ대한통운은 'CES 2020'에 참가하는 CJ 4DPLEX의 통합관 '4DX 스크린' 설비를 운송했다고 8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4DX 스크린을 구성하는 모션체어와 각종 효과를 위한 설비 일체를 총복 오창의 CJ 4DPLEX 생산지에서 각각 인천공항과 부산항까지 육상운송하고 선박과 항공기를 통해 미국라스베이거스로 운송, 행사장까지 반입해 설치하며 행사 뒤 국내로 다시

회수하는 업무까지 맡았다.

4DX 스크린은 바람, 물, 향기 등 21개 이상의 환경효과와 모션체어가 결합돼 영화 관람의 새로운 지평을 연 오감 체험 특별관 4DX와 중앙과 좌우 벽면 3면 스크린을 통해 몰입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크린X를 결합한 혁신적인 통합 상영관이다.

특히 이번 CES에서 최초 공개하는 한층 진화된 4DX 스크린은 기존 3면에 천장까지 스크린을 더해 총 4면의 스크린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CES는 45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급의 전자박람회로 워낙 많은 업체가 참가하다 보니 각 운송 구간 별로 일자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예정된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화물 반입이 금지돼 전시회 참가가 불가능하다. 또한 항공과 해상이라는 두가지 방식으로 운송하고 통관규정이 엄격한 미국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화물의 안전한 취급은 기본이다.

CJ대한통운은 화물 특성에 맞춰 항공과 해상으로 운송수단을 나누고, 화물안전과 일정 철저 준수를 최우선으로 운송을 수행했다.

화물을 내외로 꼼꼼히 포장하고, 컨테이너에 적입할 순서와 위치 등의 레이아웃까지 짜서 컨테이너에 적입했다. 미술품, 정밀전자기기 등의 국제 복합운송에 다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제전시 담당 베테랑 직원들이 운송 각 과정을 꼼꼼히 확인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운송을 총괄한 CJ대한통운의 김기현 국제전시파트장은 "혁신기술이 망라한 CES에 우리나라의 첨단 상영관을 소개하는데 일조하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마지막 국내 회수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운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CJCGV의 자회사인 CJ 4DPLEX는 이번에 영화 상영업체와 CJ그룹 최초로 세계 최대의 IT, 가전 전시회인 CES에 참가하게 됐다.

CJ 4DPLEX는 4DX, 스크린X, 4DX 스크린 등 독보적 영화상영 기술을 개발해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지난 2009년부터 10여년 간 총 220개가 넘는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68개국에 약 1천여 개의 스크린과 13만 좌석 등 세계 98개 주요 극장사에 진출해왔다.

/김승호 기자 bada@

